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진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897/8  
●PC통신: 인터넷부디아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본래 있는 마음근본 깨치는 게 수행목적

### 15면에서 계속

그러나 큰 것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허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지혜를 찾으려는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하게 떠나간다면 그 안에서 콜리가 터지는 기쁨과 고마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용서나 이해의 기준 있습니까

**문** 사람이 싫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사람이 나쁘다는 것은 과연 어느 만큼 용납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의 비장식적인 행동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편히 보이기에 더욱 괴롭습니다. 차라리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부딪치고 나면 나름대로 안정되었던 마음이 다시 미움으로 잡니다.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면서 무시해도 마음이 쓰이는 발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내 업보다 라고 하면서 내내 다스려 보려 하지만, 이내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용서나 이해 이런 것에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답**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자기 내면의 주인공이 하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거와 같이 지금 차가 놓여 있는데 모든 차들은 운전수가 하지, 이 차가 운전수를 묻고 다니는 법은 없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자기 몸뚱이를 끌고 다니면 운전수가 차 끌고 다니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 차가 고장이 나면 운전수가 고쳐서 끌고 다닙니다. 차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꼭 운전수가 고쳐주는 데를 가든지 손수 고쳐든지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를 내가 끌고 다니는 거와 같은데, 그 주인공이란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진화되면서 끌고 온 장본인입니다. 운전수가 지금 현재만 운전수가 아니라, 과거도 운전수였고 지금 현재도 운전수고 미래도 운전수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수를 믿고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생각이 나면은 거기가 멀거, 일하면서 불화증이 일어나도 '그것도 당산 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 거기 놓고, '해 주세요' 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지, 알아서도 여유가 있으면 알아서도 생각나면 거기가 놓고, 물뚱을 가지고 가면 거기가 놓고, 일상 생활에 어느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시시때때로 나오는대로, 용도에 따라서 닦는대로 거기가 놓고 거기서만이 이끌어주고, 거기서만이 해결해 주고, 거기서만이 낮게 해주고, 거기서만이 화목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 보셨죠. 큰 얼음덩어리가 있는데 끓는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어 보십시오. 잠깐 그 거죽만 녹는 듯 했다가 다시 끓는 물 한 바가지 부은 것이 되어서 같이 두더기가 돼 버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똑똑 그냥 버려버리면, 봄이 오면 끓는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 따뜻한 얼음은 스스로 녹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방 속상하고 힘들어도 주인공에 붙어 흔한 물과 버려 버려 버려. 그러면 쫄리 죽어리만큼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봄이 와서 얼음장같은 그 따뜻한 마음이 다 녹아 버리는 겁니다. 이걸 말로만 듣고 가서 '그냥 그러더라' 이렇게 이해만 하고 돌아가지 말고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이겁니다.

내가 실천을 한번 하면 해 본다면, 벌써 스스로 안에 되고 절대로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한다는 걸 실감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감으로써 내 안의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 나서 일상 생활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을 수 있을 때, '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 모든 것이 주인공 안에서 나를 공부 시켜서 반석에 올려 놓기 위해서 이끌어 주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 사람들 앞에 나서기 겁나오

**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불교에 뜻이 있어 단기

불교대학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대행스님의 답변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종의 공포증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겁에 질려 떨려서 말도 잘 못합니다. 심할 때면 책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읽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스님이 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님이 되는 것은 현실도피란 생각이 들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려 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아상이 강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수행이 부족한 탓인가요? 이대로는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잘못되고 잘 되고가 없고 악도 선도 없어요. 잘못된 거 잘된 것이 없단구요. 그 없는 도리를 안다면 전부 내가 공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하면 모든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지요. 마음속으로 자주 편안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표현으로 해 보죠. 한가지는 차를 탔으면 내리죠? 그요? 한계가 없이 그냥 타고 갈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레 차를 타면 내릴려고 타고 내리면 탈려고 내립니다. 어때요? 그 답답한 마음도 또는 어떠한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업에서 입력된 게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상관하게 있어 거기가 놓아 버리고 새 걸로 바꿔서 쓴다면 좋은 거구요. 좋게만 생각을 해서 거기가 놓으세요. 자기한테 유익하게만. 자기의 가정에도 이익하고 자기에게도 이익하고 모든 게 이익하게만 생각을 해서 놓으세요. 바꿔 놓으세요.

꿈을 꾸고도 일깨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관습에 의해서 찰떡같이 맞고 또 다가오는 용도도 '이제 이렇게 다가오니 사람이 살 수가 있냐?' 하고선 고민하고 이렇듯 말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도 나쁘고, 고민 안 하게 하는 것도 나쁘아?' 하고 거기 돌려 놓는다면, 믿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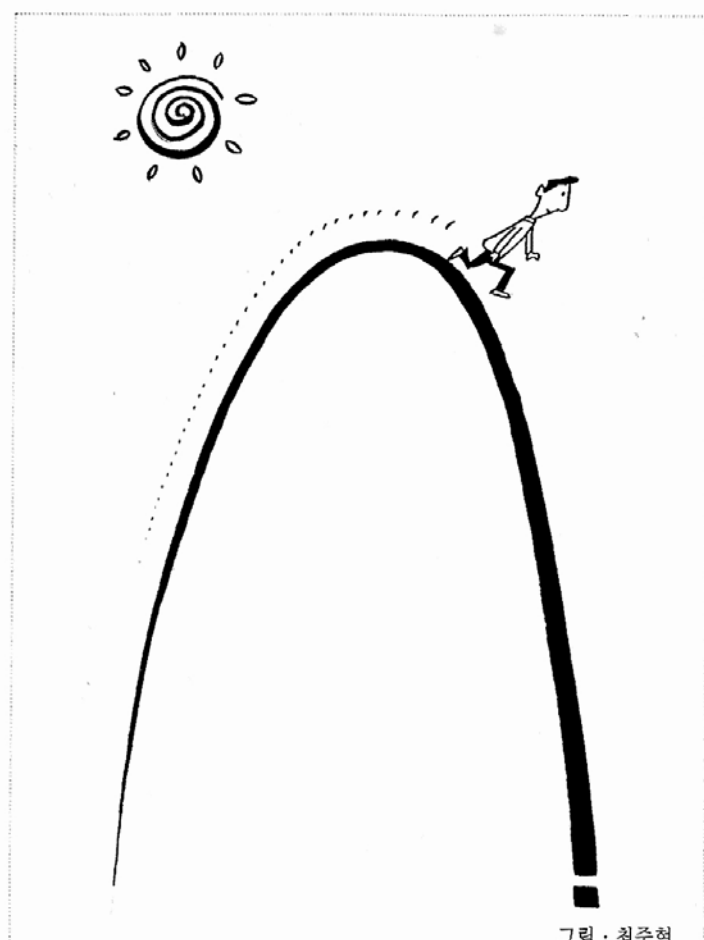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걸로다가 굴릴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어떤 애고든지...

### 문제점 녹여지지 않아요

**문** 큰스님!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저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너무 하찮게 봅니다. 사람들이 대해서도 불만이 아주아주 많아서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육성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줄 알고서도 나 자신의 문제를 녹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녹여려고

뒤에, 경을 한번 보면 바로 그게 남들이 되고 '아하!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전부 탄복을 하지만은, 내가 뿌리도 제대로 박아놓지 못한 채, 그 도리를 모르는 체 책을 아무리 봐도 그냥 겹칠거지. 그냥 이론으로만 그걸 종합을 하거나 살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입력이 되는대로 현실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한 입력을 못했을 때 입력이 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우면서 새로 입력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바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공부가 하기 싫으면 '너만

이 공부하는 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어' 이라고 입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하기 싫게 했던 입력이 없어짐으로써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뜻을 알겠어? 배우는 사람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과거에 입력했던 그 모두를, 누적인 모두를 지금 현실에 한 생각을 좋게 발란스를 맞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 잘 생각해서, 나를 리드해서 콜리가 터져야 잘못된 부분을 고칠 테니까. 지혜롭게 살게 하는 것도 너고,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것도 너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보게 하는 것도 너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관(觀)해, 잡이 와서 공부하 안 된다 할 때도 잠을 안오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너고, 하기 싫다 의욕이 없을 때 의욕이 있게 하는 것도 너라고 관해서 거기가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으로서 현실이 나온다 이거야. 모든 것을 그렇게만 한다면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너의 모습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항상 이끌어주는 내 안의 주인공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거야. 우리 학생이 영원한 나의 친구이자 나의 길잡이인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거라고 믿고

### 금강경 무위법의 참뜻

**문** 법체 청안하신지요. 큰스님 가르침에 헛되지 않게 한걸음 전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금강경>을 달달 외워도 무위법의 참뜻을 모르면 문자에 따르는 것이지 부처님 참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처님 참뜻에 귀가 솔깃하고 아주 매력적인 말로 들립니다. 부처님 참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수면중에 부처님 법문이 눈앞에 펼쳐지곤 합니다. 그러나 잠을 깨고나면 몽땅 잊어 버립니다. 이 법문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될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오고, 찰나찰나 나뉘면서, 찰나찰나 화해해서, 찰나찰나 변하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도리 먼저,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단단히 박아놓고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해놓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작업할 수만 있다면  
학목과 사랑을 가져오고  
물리가 터져 행복이 옵니다

뒤에, 경을 한번 보면 바로 그게 남들이 되고 '아하!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전부 탄복을 하지만은, 내가 뿌리도 제대로 박아놓지 못한 채, 그 도리를 모르는 체 책을 아무리 봐도 그냥 겹칠거지. 그냥 이론으로만 그걸 종합을 하거나 살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입력이 되는대로 현실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한 입력을 못했을 때 입력이 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우면서 새로 입력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바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공부가 하기 싫으면 '너만

이끌어 갈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이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당신 거고 당신이 하는 거고 당신이 틀리고 내고 '책을 보는 것도 당신이 보는 거니까 당신만이 그 책의 속 뜻을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이렇게 관한다 하는 거는 거기가 맡겨놓고 지켜보고 실험하라. 체험하라 이 소립니다. 이것이 참신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얼떨떨했을 때 그 땅을 짚고 일어나지 못했을 때 그 땅을 짚고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지 않다는 말이 있죠. 그 속에서 나온 건 그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 자녀 잘 챙겨주지 못해 속상해

**문**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대행 큰스님의 높으신 법문 청하옵고자 이렇게 글을 들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통해서 스님의 법문 잘 배우고 있습니다. 큰스님! 제가 스님께 청하옵고자 함은 저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애를 둔 40세의 주부입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며 가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기에 밥만 챙겨놓고 나오면 애들끼리 밥먹고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애들한테 집착을 하고 있는지 애들이 늦게 학교에 가지나 아침은 먹고 학교에 가는지는 불안함에 가게에 나와서도 전화로 몇번을 확인을 하게 되고 늦어서 아침을 챙겨주지 못하고 가게에 나와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애들한테 미안하고 죄책감마저 들며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제가 너무나 애들한테 집착을 하고 있다며 애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마음은 안정되다가도 애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속이 상합니다. 스님! 제가 남편의 말대로 정말 애들한테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는지요?

**답** 미국엘 가거나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고 아버지는 저녁에 나가고 그러니, 애들을 이들에 한 번도 보고 사육에 한 번도 보고 이런 집들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하게 되고, 사랑에 굶주리고 고독한 마음때문에 따뜻한 동지를 찾아 가느라고 나쁘게 되는 사자들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똑같은데요. 아침에 나가는 엄마는 밥을 해놓고 반찬을 해서 병창고에 넣어 놓고 병창고 앞다가 "너를 사랑해. 우리 식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너희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는 작업하러 나간다. 여기 여기 이렇게 넣어 줬으니가 꺼내 먹어라. 사랑해" 하고 써서 붙여 놓고 키스라도 하나 해서 거기 붙여 놓고 나가면 이 한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데에 이탈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몸으로 붙잡아 주고 말해 주고 이래서 사랑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손길이란 그렇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어가는 그 마음으로 모든 자녀들과 가족이 서로를 화목하게 이루어 나가고 또는 이탈되지 않게 되는 방법이 거기 있죠.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공부를 안한다 하더라도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욕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전력은 이 전구나 저 전구나 똑같듯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아들이라는 가설 또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설이 돼 있는거죠.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거기밖에는 화목하게 할 수 없다. 거기밖에는 병고를 낫게 할 수 없다. '거기밖에는 액난을 물리칠 수 없다. 유전을 물리칠 수 없다. 모든 일체를 다,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아주 화목을 가져 오고, 사랑을 가져 오고, 이탈하지 않게 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정신력이 아주 투철해지고, 모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번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마음선원 신도회